

# 민주 '햇볕옹호론' 선명성 경쟁 가속

### 손학규 "평화-안보 하나... 기본정신 살려야" 정동영 "햇볕수정은 민주당이길 포기하는 것"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촉발된 안보 정국에서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미묘한 정체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장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경쟁자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의 기본 철학은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햇볕정책이 안보를 소홀히 한 적이 있는가"라며 "지도부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손 대표의 전날 발언을 겨냥했다.

정동영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햇볕정책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민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유세 신설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론 등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좌클릭'을 주장해온 정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대북기조를 고리로 선명성 논쟁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을 둘러싼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의 미묘한 입장차가 추후 민주당 내부의 '좌자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과

지 내놓고 있다.

손 대표도 전날 발언이 자칫 햇볕정책의 부분적 폐도수정 시사로 읽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듯 이날 회의에서 "평화와 안보는 하나라는 확고한 철학으로 무장해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햇볕

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여력하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현 상황에서 비타협적 햇볕정책 고수론을 펼 경우 중도층 지지를 잃을 수 있고 그렇다고 폐도수정에 나설 경우, 당내 기반과 기존의 지지층인 '집토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2일 사회각계 원로와 원탁회의를 갖고 안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의 대북 규탄 정서와 맞물려 '햇볕정책 수정론'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담대한 평화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이인영 최고위원), "햇볕을 계속 쪼였더라면 북한 도발은 없었을 것"(박주선 최고위원)이라며 일제히 햇볕정책 옹호론을 재확인한 것도 이러한 균열 조짐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차원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는 보온병 안가지고 다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포탄 해프닝을 빚대 서두에서 빼있는 농담을 던졌다. /연합뉴스

# “보온병 보고 포탄이라니...”

### 안상수 대표 연평도 현상서 '오인' 해프닝 정치권 "국민들 분노 넘어 허탈감" 비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한 해프닝이 빚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계와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방송사의 영상에서 안 대표는 지난 24일 연평도 피해 민가를 둘러보던 중 쪽쪽으로 그을린 물체 두 개를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바로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네"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안형환 대변인이 "이

게 몇 mm 포탄입니까"라고 궁금증을 나타냈고, 이에 육군중장 출신인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이게 76mm 같고, 요거는 122mm 방사포"라며 박자를 맞췄다. 하지만, 안 대표 일행이 자리를 뜬 뒤 확인한 결과 그 물체에

는 보온병 상표가 붙어있었다. 이에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본인 착각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연평도에서 '안보쇼'를 벌이려다 생긴 해프닝이니 더욱 무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꼬집었다. 문제가 커지자 안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 의원과 안 대변인은 물론 현장을 있던 그 어느 누구도 포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 속에 그 물체가 당연히 포탄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안내를 하던 분 중 한 사람이 '이것이 북한군 포탄'이라고 설명하자, 동행했던 방송카메라 기자가 안 대표에게 포탄을 들고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과문은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다. 당시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

이 연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야당들은 안 대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1일 "물의를 일으켰으면 깨끗이 사과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뻔뻔스럽게 '남 탓', '언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더욱 가관"이라며 "병역미필정권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꾸짖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무려 10여 년간 핵방탄 등등의 사유를 들어 군대 가지 않은 안 대표의 면피성 오버액션으로 치부하기엔 지켜보는 국민이 참으로 불안하다"고, 자유선진당의 한 정변을 연상시키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한 집권여당의 대표와 군 출신 의원의 회귀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비자금 의혹' 한화 김승연 회장 소환

### 기업 부당지원·수백억 차명 재산 추궁

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일 오후 1시50분경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9월16일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를 본격화한 지 77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한유

통'과 계열사 '드림파마'에 2900여억 원을 부당지원하고 차명계좌로 690억여원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캐뎠고 있다.

검찰은 애초 김 회장이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을 개연성을 조사했으나 돈의 용처와 관련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회장이 기업

부당지원으로 그룹에 거액의 손해를 떠넘기고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수천억원대 지원을 받은 한유통 등 업체가 김 회장이 소유한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해, 그가 해당 회사를 통해 돈을 횡령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무를 총지휘한 혐의로 한화의 재무담당 임원 출신인 홍동욱 여전NCC 사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檢, 오늘 천신일 영장 청구 방침

### 세차래 소환 불응 어제 검찰에 출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일 천신일(67) 세종나모 여행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서 은행 대출이나 세무조사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도움을 주는 대가로 40여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천 회장을 조사한 뒤 일단 돌려보내다가 이르면 2일 오후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2006년께 이씨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

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금융기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지난해 국세청이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는지 등을 캐물었다.

천 회장은 검찰의 임천공업 수사가 본격화하던 8월19일께 출국해 일본과 미국 등지를 오가며 세 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가 지난달 30일 귀국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날 오전 9시50분경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북구청 대형 마트 건축허가 승인 유감” 민주당 광주시장

### ‘선거범죄 0% 투표참여 100%’ 제로백운동 장흥군 선관위 ‘최우수상’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 0%, 투표참여 100%'-참 선거 민주마을(일명 제로백 운동)을 실시한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규·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사진)가 민관협력포럼에서 주최하는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흥군 선관위의 '제로백 운동'은 돈 선거 근절 및 투표를 향상을 위해 주민을 공명선거 계도대상인 자발적 선거주체로 내세워 불법선거 자정노력을 유도한 사업이다.

장흥군은 또 전남 선관위 주관으로 추진했던 공명선거 지수를 활용한 공명성 수준 측정결과에



‘제로백 운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은 2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대회는 정부·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민관협력 모델의 개발·보급 및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어 온 북구 대형 마트 건축허가를 승인한 지방 소속 자치단체장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광주시장 '대형마트·SSM 입점 저지 대책특위'는 1일 성명을 내고 "북구 대형마트 입점철회만이 지역경제가 살길"이라며 "광주 북구청이 그동안 법적공방 등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대책특위는 "지난달 30일 북구청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건축허가 결정 방침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며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고고고의 재심신청에 적극 공조해 대형마트 착공을 막아내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음료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일곡지구 롯데칠성음료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